

역사적인 주체 103(2014)년 신년사와 새해축전의 기본사상에 대하여

사협중앙 부회장 리영수

1.올해 신년사의 기본체계

※이 부분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내용

△앞말-새해인사

1.지난해의 총화(지난해의 특징)

《지난해는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로선을 받들고 총공격전을 벌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자랑찬 해였습니다.》

※빛나는 승리의 해-2012 년이후 처음되는 규정이다.왜 빛나는 승리라고 평가? 그 내용은?

1)지난해에 이룩된 성과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내이고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공화국창건 65 돛과 전승 60 돛에 즈음한 정치행사들과 지난해의 전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였다,당과 인민대중의 혈연의紐대가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당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일심단결이 백배로 강화되였다.

△지난해에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고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

국방과학의 첨단을 돌파하여 선군조선의 위력을 떨치였다,적들의 핵전쟁도발책동과 반공국대결소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였다.

△지난해에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자립경제의 토대가 더 튼튼히 다져졌으며 특히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은 일떠세우고 건설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놓았다.

△지난해에 체육과 교육을 비롯한 문화부문에서도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2)승리의 요인과 역사적교훈(진리)

△승리의 요인

《지난해의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로선과 정책,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전당,전군,전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영웅적투쟁을 과감히 벌린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입니다.》

△역사적교훈(진리)

《우리는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사상,우리 힘,우리 식이 제일이며 원대한 리상과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성스러운 위업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는 승리의 요인만 규정되었으나 올해는 교훈이 언급되었다.특히 그 무엇으로써도라는 부분은 깊은 뜻이 있는것 같다.

2.올해의 과업

△2014 년의 역사적지위

《새해 2014 년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위대한 변혁의 해입니다.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 돛을 빛나게 장식할 대축전장과 잇닿아있는 승리자의 진군입니다.

우리는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올해의 위치를 파악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 대목이다.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선군조선의 번영기

-래년 당창건 70 돛과 잇닿은 투쟁,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한다.

△올해 투쟁구호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 가자!》

△3 대선행부문

《우리는 올해에 농업부무과 건설부문,과학기술부문이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나가며 그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3 대선행부문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번영기를 여는데서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되고있다.

농업에 주타격방향-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경제건설,인민생활을 크게 향상시키는데서 초점

(문명국건설의 과제)

과학기술-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①금속과 화학공업(쌍기둥),②전력과 석탄공업,③경공업,④수산부문,⑤지하자원,산림자원 해양자원보호,⑥절약투쟁,⑦경제지도와 관리

△교육과 문화건설에서 큰걸음을 내짚어야 한다.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방도

-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야 한다.(가장 큰 예비,기적창조의 근보열쇠)
-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인민의 총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어야 한다.

※작년은 일군들의 사상관점,사업기풍,일본새문제와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제고를 제기

이번에 제기한 3 가지문제는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방도이면서도 종파의 후과를 청산하는 측면도 포함되고있다.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 외세를 베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친필 20 뚝을 상기(조국통일유훈)시킨데 기초하여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밝히시였다.특히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제기(내용상은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

이것은 조미전면대결전에서의 승리와 박근혜정권이 진퇴량난의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평가에 기초하여 길을 열어준것이라고 볼수 있다.

△공화국의 대외정책과 립장

※대외정책과 립장에서는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과 원칙적립장이 재천명되였다.특히 강력한 자위적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천명되였다.그러나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이미 조미간의 힘관계,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고 선택지가 조미관계정상화의 길밖에 없어진 조건(이미 미국에 제기)에서 구태여 언급안했다고 볼수 있다.

△맺음

2.올해 신년사의 위치와 중요성(기본사상)

올해 신년사는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갈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힌 강령적지침이라는데 그 역사적지위와 중요성이 있다.(기본사상)

※로동신문 2012 년 1 월 2 일부 사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자》에서는 신년사의 위치를 3 가지로 규정하였다.

- ①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앞날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자부심을 안겨주는 고무

적기치,②선군조선의 변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약과 혁신의 지름길을 밝힌 강령적지침,③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며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세계 만방에 높이 떨쳐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

신년사의 위치와 중요성과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대 변영기》,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의 뜻을 파악하는것이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올해 신년사의 기본사상,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가 집대성되고있기때문이다.

△일대 변영기란?

전성기란 일이나 운동이 진행되는 형편이나 상태가 한창 꽃피고 발전하는 시기를 말한다.

변영기란 모든 면에서 번성(흥하다)하여 행복스럽게 발전하는 시기를 말한다.

이에 기초하여 변영기는 다음과 같이 리해할수 있다.

-모든 분야,모든 부문을 포괄한다.(모든것이 흥해야 변영기라고 할수 있다)

-기준치(목표)-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는것(구상을 현실화,체감하도록)

지식경제강국건설,사회주의문명국건설

-방식(초점적과업)⇒ 농업,건설,과학기술에서 혁신의 봉화,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이란

김일성민족의 정신력과 김정일애국주의를 최대로 발양시키고 선군시대의 시대정신(맞받아 나가는 공격정신)을 구현한 《마식령속도》에 기초하여 끊임 없는 비약을 일이켜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어 하루빨리 강성국가건설의 높은령마루를 점령하고야 말 구상과 결심이 깃들어있다.(강성국가건설방식,속도)

※민주조선 1월 2일부 기사 《올해에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에서는 《전투적구호에는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는 대혁신,대비약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투쟁의 승리를 앞당겨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이 구현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대 변영기를 열어나간다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의미한다.다시말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2007 년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히신 선군조선의 일대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구상에 기초하고있다.

2007 년 새해공동사설에서는 《선군조선의 일대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시대,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년대는 조국변영의 전면적개화기를 열어나가는 보람찬 년대,위대한 변영의 시대》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를 위한 과업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통일강성국가건설을 전면에 제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히신 변영기구상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변영의 전면적개화기,변영의 시대를 열어나갈데 대한 2007 년구상에 기초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설부문일군대강습에 보내신 서한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변영기를 열어나가자》(2013.12/8)에서 변영기구상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오늘 우리 당과 혁명앞에는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어 하루빨리 강성국가건설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여야 할 중대한 시대적과제가 나서고있습니다.》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변영기로 더욱 고조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건설력사를 창조하고 건설부문에서의 혁신의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게 하여 조국변영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이에 기초하여 올해 신년사에서 변영기구상(설계도)을 구체적으로 천명하신 것이다.

말하자면 올해부터 선군조선의 일대 변영기를 열어나가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확히 리해하자면 2012 년이후에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2012 년이후에 이룩한 성과

-2012 년의 력사적위치와 성과

2012 년은 새로운 주체 100 년대의 력사적진군이 시작한 해이며 새 100 년대의 창창한 미래를 기약하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 력사의 분수령의 해,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가 개척된 력사적인 해였다.

⇒창창한 미래를 기약하는 일대사변이란?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

①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당중앙위원회 제 1 비서,국방위원회 제 1 부위원장,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이다.

이것은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할수 있는 근본담보인 령도의 계승문제의 빛나는 해결을 의미한다.

②력사적인 4 월 15 일연설을 비롯한 일련의 로작들에서 주체의 새 백년대계전략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신것이다.

이것은 백승의 전략적대강,최후승리의 진로가 확고히 마련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③수령,당,군대,인민의 일심단결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 그 불패성이 더욱 공고화된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실천적모범을 통하여 일군들이 생눈길을 헤치는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며 민심을 틀어쥐고 모든 사업을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는데 지향시키고 복종시키도록 하시였다.

또한 105 땅크사단에 대한 현지도도를 시작으로 인민군대가 선군혁명의 척후대,억척의 지지점이 되고 모든 분야에서 군인정신,군인기질,군인본때를 높이 발양하도록 이끄심으로써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군민대단결의 새 시대를 펼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일심단결은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사상과 뜻으로 단결하고 정과 의리로 뭉치며 팔을 끼고 어깨걸고 백승의 길로 곧바로 나아가는 필승불패의 통일단결로 더욱 승화되었다.

이것은 주체혁명위업의 필승불패성을 더욱 공고화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의 마련을 의미한다.

④전당,전군,전민이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으로 나아가는 새 100 년대의 역사적총진군운동이 창조된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주체의 100 년대총진군을 벌리는데서 김일성민족의 정신력,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여 2012 년 7 월 26 일 역사적인 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다그치자》를 발표하시고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시였다.

이 과정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제자들의 충정의 총진군운동,김정일애국주의열풍으로 내달리는 새로운 주체 100 년대의 총진군운동이 창조되었다.

이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전로정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정신적량식과 원동력(운동방식)이 마련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⑤새 세기 사업혁명의 불길높이 경제강국건설,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 문명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나가는 새로운 투쟁단계에 들어서게 된것이다.

이것은 선군조선의 일대전성기,새로운 주체 100 년대개척의 도약대가 마련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성과는 2012 년 12 월 7 일,21 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참조)

⑥치렬하게 진행된 조미대결전에서 역사적승리를 이룩하고 조선반도에 남아있는 탕전의 잔재물을 완전히 청산하는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선군의 기치밑에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는 결사전을 벌리시였으며 8 월의 전선시찰을 통하여 조국통일대전준비의 완료와 최고사령관의 명령하달을 통하여 미국과 추종세력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여지없이 분쇄하시였다.

또한 8 월 25 일연설을 통하여 우리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시면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전환을 강하게 압박하시였다.

특히는 4 월 15 일열병식과 《광명성- 3》호 2 호기의 성과적발사를 통하여 우리의 무적필승의 군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도록 하시였다.

참으로 2012 년은 군사적압박,경제봉쇄,국제적포위환,내부분렬 등 미국의 모든 대조선정책의 전면파탄의 돌파구가 열린 역사적인 해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은 물론 조국통일위업과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새로운 단계으로 발전시키고 그 종국적승리를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마련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2012 년은 주체의 100 년사를 총화하는 동시에 새 100 년대개척의 모든 담보를 마련한 말그대로 력사의 분수령의 해로 특징지어진다.

이에 기초하여 2013 년부터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으며 2013 년에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는 투쟁이 진행되였다.

△2013 년의 역사적위치와 성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3 년 신년사에서 주체의 백년대계전략을 따라 이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데 대한 전략적구상을 밝히시고 2013 년을 ①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 해,②21 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놓아야 할 해,③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아야 할 해로 규정하시였다.

이에 따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미전면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는 한편 우리가 내세우고 결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190 여회에 달하는 강행군현지지도로 전당,전군,전민을 김정은시대 새로운 건설속도인 마식령속도 창조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시여 2013 년을 창조와 변혁의 한해로 빛나게 장식하시였다.

-2013 년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자랑찬 해였다. (신년사총화)

김정은시대의 견지에서 보면 작년은 김정은시대의 꿈과 리상의 높이, 전진속도와 힘을 과시한 한해였다.

그러면 지난해 이룩된 성과를 어떤 각도에서 파악하여야 하는가?

2012 년에 새 100 년대개척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면 2013 년은 천하제일강국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전면적건설단계)에서 전환적국면이 마련된 해였다.

전환적국면이란 천하제일강국건설의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였다는 것과 새로운 투쟁단계인 번영기기로 넘어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의 마련을 의미한다.

①반미전면대결전에서의 커다란 승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

평화를 담보하는 핵억제력을 확보-조미전면대결전에서 승리

경제건설,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승리의 전략적로선(새 병진로선) 마련

※경제건설에 보다 큰 힘을 돌릴수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는것이다.

-새로운 병진로선과 조미대결전의 승리에 기초하여 경제강국건설사업이 적극 추진

특히 11 월 21 일에 전국 13 개 경제개발구 신설할데 대한 경제특구건설 건설계획이 발표되고 그것이 현실화되었다.

개성고도과학기술개발구 착공식(11/11)

함북 온성개발구 계약

신의주-평양-개성고속철도 고속도로건설 계약(2018 년 완공)

이것은 미국의 군사적압박,경제제재의 파탄 다시말하여 강성국가건설의 최대의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②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당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일심단결이 백배로 강화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총화(신년사)-폭넓게 리해하여야 한다.

-하나는 미국의 내부와해책동에 결정적타격을 안겨주었다.

미국은 아시아중시정책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난

다는 망상(5029 작전계획을 의미)밑에 군사적압박과 경제봉쇄,국제적포위환의 형성과 《동까모》와 같은 내부붕괴책동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라크,리비아방식으로 공화국의 제도전복을 이루어보자는것)

반종파집단의 적발,청산은 미국이 크게 기대했던 《급변사태》마저 가능성이 없어졌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사령부로서의 내각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반종파집단의 적발,청산은 경제건설의 큰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는것을 의미한다.

③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번영기에도 넘어갈수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

-농업생산에서 혁신

2013 년 알곡생산-598 만톤

여기에는 경사지 15 도이상의 농경지,개인 부업지,국영농장 생산량은 제외
실질적으로 600 만톤을 넘은것으로 추정된다.(국내수요 520 만톤)

※세포등판건설,간석지개간,물길공사 등 완공되면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크게 해결할수 있게 된다.(확고한 토대,전망이 마련)

-건설에서 이룩된 성과(건설의 최정성기 마련)

※12/15 일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창조와
건설의 최정성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미식령스키장,미림승마구락부,옥류아동병원,류경구강
병원을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운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수만세대 살림집건
설,통라인민체육공원을 비롯한 체육오락시설과 원산,칠보산지구,개성시 등 휴
양지,관광지건설,세포등판개관공사,7000 여동의 남새온실건설,함흥모방직공장,
박천견직공장 등 새로운 생산공정의 건설,만포연하발전소,어랑천 2 호발전소,
초산청년 2 호발전소 완공,강선에서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도
입공사,담천제련소에서 산화아연생산공정건설,태탄대홍광산의 조업,신원세멘

크공장 건설 등등

④체육과 교육을 비롯한 문화부문에서도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구상실현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2013 년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

※로동신문 2013 년 9 월 4 일부 사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를 참조

-이것은 또한 미국의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전면파탄시켰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신문 2014 년 1 월 9 일부 정세론설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민주조선 2014 년 1 월 16 일부 《미제의 심리모략전에 각성있게 대처해야 한다》를 참조

이상과 같이 지난 2 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2014 년 부터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나가야 한다는것이 이번 신년사에서 밝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이며 의도이다.

3.올해 새해축전의 기본사상에 대하여

올해 새해축전은 매우 짧고 특별히 새로운것이 없다,중요내용이 없는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수도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올해 새해축전의 구절구절을 깊이 새겨야 한다.
그러면 새해축전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가?

△일련의 축전,말씀과 결부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주체의 백년대계전략과 백두산대국,천하제일 강국을 건설할데 대한 전략적구상에 기초하시여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갈 진로와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원수님께서서는 2012 년 7 월 20 일 지부일군대회앞으로 보내주신 축전을 통하여 위대한 대원수님의 유훈을 불멸의 기치로 추켜들고 재일조선인 운동을 오직 주체의 길,애국애족의 길,강성번영의 길로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 데 대한 재일조선인운동의 진로,총련사업의 총적방향을 밝히시였다.

또한 2013 년 새해축전을 통하여 총련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큰걸음을 내짚을데 대하여,총련을 전통이 굳건하고 군중적지반이 강하며 전도가 양양한 위력한 애국조직으로 만들데 대하여, 김일성민족,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기상,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새로운 양양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스런 위훈을 새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또한 9 월 7 일에는 친히 축하문을 보내주시여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우리의 귀중한 한식술이라고 하시면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앞으로도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단체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여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더욱 높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이번 축전은 일련의 축전,말씀관철을 전제로 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개척에서 올해의 위치와 요구를 집약적으로 밝히신것이다.

△로동신문 기사와 결부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2013 년 12 월 31 일부 로동신문에서는 이례적으로 《어머니조국이 있는 한 재일조선인운동은 시련을 박차고 승승장구할것이다》라는 표제밑에 4 편의 기사가 게재되였다.

※4 가지 기사의 제목

《새로운 전성기개척을 위한 투쟁의 원동력》, 《동포대중속에 뿌리박은 활력있는 조직으로》, 《조국의 숨결에 발걸음을 맞추어》,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켜》

여기에는 지난해 총련사업에서 이룩한 특징적인 성과와 함께 한해투쟁을

통하여 확증된 귀중한 지리(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재일조선인운동은 시련을 박차고 승승장구한다)가 강조되고있다.

이것은 곧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신문 기사내용과 결부하여 축전을 파악하여야 한다.

△올해 23 전대회가 있다는것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가지게 될 23 전대회앞으로 축전을 보내주실것과 거기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개척하는데 나서는 전략전술적문제들이 제시될것이 예견된다.

이로부터 이번 새해축전은 이미 밝힌 로선과 방침을 보다 철저히 관철하라는 위치에 있다.

△올해 새해축전의 진수,기본사상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신 숭고한 믿음과 사랑을 애국의 열정으로 불태우며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게 되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라는 말씀에 있다.

- 《믿음과 사랑을 애국의 열정으로 불태우며》라는 말씀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총련을 가지고있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랑이라고 거듭 평가해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동무들은 나를 믿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애국유산인 총련을 고수발전시키자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9월 7일 축하문에서 우리 조국과 인민은 애국애족의 선각자,애국충정의 모범인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긍지와 자랑으로 여기고있다,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우리의 귀중한 한식솔이라고 하시면서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고계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돌려주시는 믿음과 사랑은 총련애국사업의 힘의 원천이며 총련이 지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주체의 궤도따라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떨칠수 있었던 근본담보였다.

또한 믿음과 사랑에는 충정과 애국의 열정으로 보답하는것이 우리의 의무, 숭고한 의리이며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진짜배기일군의 본색이 있다.

바로 총련애국사업의 힘의 원천,근본담보,우리 일군들의 본색을 명철하게 밝히시고 그것으로 온갖 시련을 뚫고나가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이고 뜻이다.

-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게 되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가?

굳게 확신한다는 말씀은 이제까지의 축전,축하문에는 없는 표현이다.

9 월 7 일 축하문에서는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더욱 높이 떨쳐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확신이라는 말씀에는 말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고의 믿음과 요구가 깃들어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재일조선인운동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는 지상과업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축전은 종래의 축전보다 그 무게,요구가 높다고 파악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총련중앙에서 호소한것처럼 올해 어떤 일이 있어도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개척에서 획기적전환의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2012 년-새 전성기개척의 도약대를 마련한 해

2013 년-새 전성기개척의 활로를 열어제긴 해

2014 년-새 전성기개척에서 획기적전환의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 해

총련 23 전대회-획기적전환의 국면을 열기 위한 방침채택

23 전대회 결정관철의 첫해-획기적전환의 국면을 마련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고 올해사업에서 새로운 혁신과 비약을 일으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해외전우,해외동지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